

사회

■ 르포-불황속 독버섯처럼 번지는 성인오락실 현장

합법 눈가림 도박장 아침부터 복직

차량 이용 쿠폰 현금 환전 단속 어려워

7일 오전 11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인근 한 성인오락실. 오락실에 들어서자 퀴퀴한 담배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30~50대로 보이는 손님 20여명이 오락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기자도 만원짜리 한 장을 500원짜리 동전으로 교환한 뒤 오락기 앞에 앉았다. 옆에 앉은 손님에게 게임 방법을 묻자 “젊은 사람이 무슨 일이나”라는 핀잔은 잠깐, 이내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기계에 돈을 충전하느라 실세없이 움직였다. 갑자기 오락기 한 대에서 ‘축하음역’이 흘러나왔다. 5대의 기계를 돌리고 있던 손님의 기계에서 현금 20만원에 해당하는 패가 나온 것이다. 그는 곧바로 알바생을 불러 20만원 상당의 쿠폰으로 교환한 뒤 고맙다며 쿠폰 중 한 장을 건넸다. 이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인당 1대의 기계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명백한 행정처분 대상이다.



구제역 예방 방역 소독

7일 오전 11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인근 한 성인오락실. 오락실에 들어서자 퀴퀴한 담배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30~50대로 보이는 손님 20여명이 오락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기자도 만원짜리 한 장을 500원짜리 동전으로 교환한 뒤 오락기 앞에 앉았다. 옆에 앉은 손님에게 게임 방법을 묻자 “젊은 사람이 무슨 일이나”라는 핀잔은 잠깐, 이내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7일 장동동 한 축사에서 겨울철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북구는 12월까지 구제역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방제단을 구성해 71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팅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문한 오락실에서는 금액의 한도는 없었다. 똑딱이라고 불리는 게임보조장치 때문에 누구나 몇 대의 기계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었다. 합법적인 오락실이지만 똑딱이와 점수 쿠폰 발급행위가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경찰 지체자의 무기력한 단속의지도 사행성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환전상’ 등도 차량을 이용해 은밀하게 움직여 단속이 어려운 것도 성인오락실이 성업하는 이유 중 하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총인시설 의혹 내사

檢, 시민단체 요구에... 진정인 관계자 조사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광주시의 총인시설(하수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광주지검은 7일 “수사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 참여자 21의 진정에 따라 심사과정 등 업체선정 전반에 걸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정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내사 수준에서 진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공사비 총액은 982억원으로 특정업체에 설계점수 1위를 매긴 공무원 4명 등 심사위원 7명이 업체 선정 뒤 해촉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의회에서도 이를 꾸준히 문제제기했으며, 참여자 21은 감사원과 검찰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참여자 21은 검찰 진정에서 평가항목과 심사규정의 위법성, 심사위원들에 대한 로비와 불공정한 심사, 업체 답합 의혹, 유지관리비 과다산정에 따른 예산 손실, 설계시분과 위원 해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니원침 (8433) 김창두



분실 스마트폰 찾기 어려운 이유 있었다

택시기사에게 넘겨받아 몽골 등에 200대 밀수출 광주 조폭 일당 등 검거

술에 취한 승객의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수집해 밀수업자에게 팔아넘긴 조폭과 택시기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7일 분실·도난 신고된 스마트폰을 입수해 밀수업자에게 팔아 넘긴 광주 5과 조직원 김모(33)씨를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 구모(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 등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 택시기사 강모(2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밀수출업자 박모(43)씨 등 2명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택시 기사들에게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대당 1~13만원 상당의 사물여 밀수업자 박씨 등을 통해 대당 3~34만원에 중국, 몽골로 모두 200대를 밀수출해 4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투약 목적으로 120만원 상당의 필로폰 0.1g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중고 스마트폰이 외국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경향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택시 기사들에게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대당 1~13만원 상당의 사물여 밀수업자 박씨 등을 통해 대당 3~34만원에 중국, 몽골로 모두 200대를 밀수출해 4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투약 목적으로 120만원 상당의 필로폰 0.1g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중고 스마트폰이 외국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승려 사칭 15억 사기

장성경찰청은 7일 승려를 사칭해 신도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최모(6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부인의 한 사찰을 찾은 A(여·48)씨에게 승려라고 속인 후 5000만원을 받아 가보체는 등 10여 명의 신도에게 15억원 이상을 챙긴 혐의다. /중부재판부부-김용호기자 yongho@

기계에 거짓 주문 후 즉발 슬쩍

가솔린 충전소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즉발 가게에 가까 주문전화를 2통을 건 뒤 배달원이 다른 곳에 배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즉발을 훔치는 ‘잔꾀’를 부렸다 경찰서엔.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달리던 시내버스 바퀴 빠지고

버스 뒷부분 주저 앉아... 대형사고 날 뻔

달리던 시내버스의 한쪽 바퀴가 통째로 빠지거나가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7일 오후 5시경 광주시 북구 유동 화물공제조합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대진운수 소속 51번 시내버스의 운전석 방향 뒷바퀴 2개가 바퀴 축에서 떨어져 나갔다. 사고 버스는 곧바로 보도 옆 3차로로 방향을 틀어 급정거했으며, 버스 뒷부분이 주저앉으면서 20여명의 승객들이 놀란 가슴을 솥여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차량 정체가 있었거나 주차차량이 있었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목격자 이모(52)씨는 “반대 차선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광’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 바퀴가 빠져나온 뒤 차 쪽으로 거의 날아오다 사고 해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버스 기사를 상대로 정비 불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도착 알리는 전광판은 ‘먹통’

오전 7시~10시 322곳... 이용객 큰 불편

광주시내버스 도착 안내시스템이 7일 2~3시간여 동안 울스톱 때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광주시와 시내버스 이용객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시내버스 정류장 322곳에 설치된 시내버스 도착 안내기가 고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일부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시내버스 도착 안내시스템이 한때 정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권필기자 cki@

전남지방경찰청은 7일 염전 인부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휴게텔 종업원 김모(37)씨와 이모(42)씨 등 여자종업원 3명, 박모(38)씨 등 성매매수 남성 10명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휴게텔 실제 업주 장모(39)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 목포시 죽동 주택가에 남성 휴게텔을 차려 놓고 40대 여성 종업원을 고용

염전 주인 아들이 인부들 성매매 알선

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화대 일부를 챙기는 수법으로 6개월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1200만 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단속에 대비해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여성 종업원들은 위장된 샤워실 등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염전의 인부 7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화대 일부를 챙기는 수법으로 6개월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1200만 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단속에 대비해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여성 종업원들은 위장된 샤워실 등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염전의 인부 7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지방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공시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2011고단 1675 주식회사 박성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678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1681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1683 광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686 유한회사 흥남화물 도로법위반
2011고단 1689 주식회사 현대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692 여현화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695 여현화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698 여현화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01 여현화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04 여현화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15 주식회사 로텍스 (변경전 주식회사 보성기업)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18 주식회사 로텍스 (변경전 주식회사 보성기업)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21 주식회사 로텍스 (변경전 주식회사 보성기업)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24 씨에스티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27 씨에스티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30 주식회사 대일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33 주식회사 대일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36 아시아운송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39 아시아운송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45 주식회사 연인봉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48 주식회사 현대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51 주식회사 로텍스 (변경전 주식회사 보성기업)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66 주식회사 현대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69 주식회사 현대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72 주식회사 현대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75 주식회사 현대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78 유한회사 무등봉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81 유한회사 무등봉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84 주식회사 유성기업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87 주식회사 목성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90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93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96 광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99 유한회사 흥남화물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02 주식회사 현대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33 주식회사 보성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36 주식회사 로텍스 (변경전 주식회사 보성기업) 도로법위반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2011고단 1839 주식회사 로텍스 (변경전 주식회사 보성기업)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42 유한회사 나라운수 (변경전 주식회사 보성기업)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45 삼정유화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48 삼정유화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51 동원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57 유한회사 연안봉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60 주식회사 현대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63 주식회사 현대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66 주식회사 현대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69 주식회사 현대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72 유한회사 무등봉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75 유한회사 대양특수운송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78 주식회사 박성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81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84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87 광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90 유한회사 만물복수화물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92 흥남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896 여현화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933 여현화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966 여현화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968 여현화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971 여현화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974 대한운수 유한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977 대한운수 유한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980 대한운수 유한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983 대한운수 유한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986 유한회사 대성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1989 주식회사 흥남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992 주식회사 흥남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1995 유한회사 성운기업 도로법위반
2011고단 1998 유정유화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001 유한회사 광안화물 도로법위반
2011고단 2004 유한회사 삼경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007 풍천산업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014 주식회사 로텍스 (변경전 주식회사 보성기업) 도로법위반
2011고단 2017 주식회사 로텍스 (변경전 주식회사 보성기업) 도로법위반
2011고단 2020 주식회사 로텍스 (변경전 주식회사 보성기업) 도로법위반
2011년 11월 7일
판사 정우정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스타벅스빌딩매매(8층)
-분양면적: 450평
-전용면적: 300평
-매매금액: 13억원
-모든 업종 가능
상무지구 빌딩 매매
-대지: 257평
-연건평: 900평
-보증금: 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10억원
-매매가: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106평
-보증금: 3억5천만원/월 650만
-용5억 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신원지구 상가 분양·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
고급식당·독서실·PC방
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21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국민은행 2차 코너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 2차 모아엘가 정문아파트(5,000세대)
★롯데마트 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0621961-3377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선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김정가2억 6천만 최자가 1억8천만
·동구 동명동 조대일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김정가 4억8천만 최자가 3억8천만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김정가 4억2천만 최자가 2억9천만
단독주택
·광산구 윤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김정가 2억4천만 최자가 1억9천만
근린주택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김정가 4억5천만 최자가 3억1천만
상가매매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안집(도시가스, 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
토지매매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물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유기해수욕장 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